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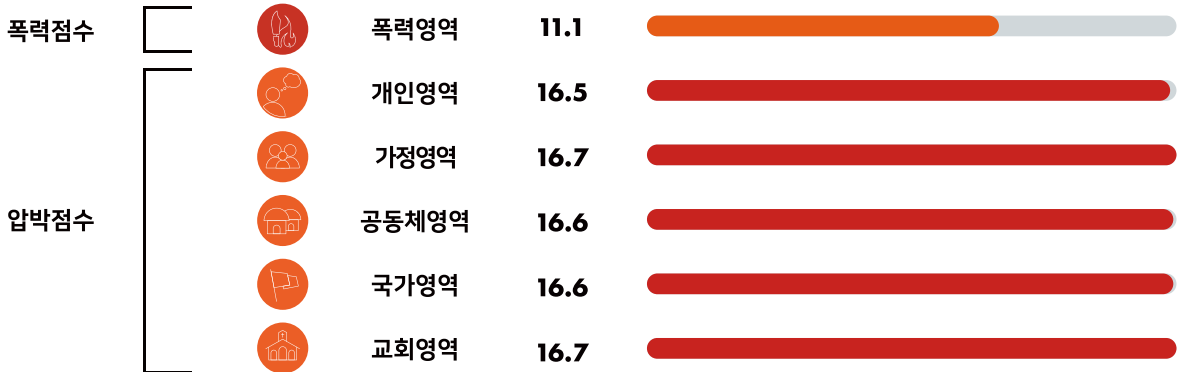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소말리아 (SOMALIA)

기독교 박해지수
2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소말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극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부 클랜의 반란과 군사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알샤바브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연방 및 지방 당국에도 성공적으로 침투했다. 그 영향력은 케냐와 같은 인접 국가에도 미치며,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알샤바브는 엄격한 샤리아 법을 지지하며, 소말리아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즉시 처형되는 경우가 많다.

수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위험은 증가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 지도자를 식별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극단주의 단체가 제기하는 즉각적인 위협 외에도 소말리아의 사회 구조는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이 지역 사회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가족뿐만 아니라 클랜과 사회 전체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으로 간주된다. 개종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소말리아 (SOMALIA)

국가 정보

지도자 : 하므자 압디 바레 총리
인구 : 18,707,000 명
기독교인 수 : 수백 명 (OD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연방 의회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수백 명	-

OD 추정에 따름

1960년 '과학적 사회주의'를 도입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대통령 시대 이후로, 소말리아의 기독교인들은 광범위한 박해를 받았다. 바레의 세속적이고 개혁적인 정부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급진적인 무슬림들과 공통점을 찾았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추방되었고, 교회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기독교 문서의 인쇄,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국가보안국(NSS)은 많은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협, 체포, 고문, 심지어 살해까지 했다.

1991년 바레 정권이 붕괴하면서 소말리아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고, 이슬람주의자들, 지역 민병대, 군벌들

이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다. 분열된 통치 구조에도 불구하고 알샤바브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국가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말리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케냐에서도 활동을 확장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에티오피아로의 확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알샤바브는 다양한 불법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2012년 소말리아 헌법은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명시하고 샤리아 법을 모든 것 위에 두어 다른 종교의 전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수니파 무슬림 다수는 기독교인을 문화적으로 해로운 존재로 본다.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남성은 종종 보이콧, 위협, 고문, 심지어 사망에 직면하며, 여성은 성폭력과 강제 결혼의 위험에 처해 있다.

폰트란트와 소말릴란드와 같은 준자치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

한 상황에서, 나머지 소말리아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역들의 헌법도 이슬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다른 종교를 금지하고 있다. 소말릴란드에서 교회를 열거나 재개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지역 정부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종종 현지인들이 배교 혐의로 체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한 지역은 없다. 그러나 알샤바브와 같은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 세력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지역은 특히 남부와 남서부, 키스마요, 자마메, 마르카, 엘 후르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소말릴란드와 폰트란드와 같은 북부 지역은 남부보다 안정적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극심한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으며, 알샤바브 요원들에 의해 고가치 표적으로 간주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또는 개종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은 발견되면 종종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

이슬람 무장 세력은 많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의심되는 소말리아인들을 살해한다. 국가가 안정화되고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정치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대체로 엄격한 샤리아 법 해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클랜 (부족) 억압

소말리아 사회는 강한 클랜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무슬림 신앙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가족 구성원들과 클랜 지도자들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배신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사람은 즉각적인 폭력의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범죄자들은 소말리아의 무법 상태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다. 그들은 불법 무역 경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며, 알샤바브와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카르텔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무기를 구입하고 기독교인 및 다른 민간인에 대한 공격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독재적 편집증

소말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기독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기독교로 개종한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많은 이들이 숨어서 생활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받는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엄격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거나, 강간, 납치, 급진적인 세이크와의 강제 결혼 또는 살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미 결혼한 경우, 이혼당하거나 자녀가 이슬람 방식으로 양육되도록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 여성들은 남편이 감옥에 갇히거나 살해될 때도 고통을 겪으며, 많은 경우 남성 친척들에게 착취당하고 가족은 종종 빈곤에 빠지게 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거부
- 자녀 양육권 박탈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마을/국가에서 강제 추방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소말리아는 높은 사회적 통제를 가진 가부장적 사회이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의심받는 소말리아 남성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그들은 신체적 폭행, 투옥, 심각한 위협, 고문, 납치 또는 살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남성들은 가족 내에서 종교 문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개종할 경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은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이슬람 재활 센터에 보내 알샤바브 민병대로 훈련시키며, 개종자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압력은 많은 남성들이 더 깊이 숨어들게 만든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복무
- 폭력 - 사망 / 신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	94
2024	2	93
2023	2	92
2022	3	91
2021	3	92

소말리아에서 박해 점수가 증가한 이유는 WWL 2024에서 10.6점에서 WWL 2025에서 11.1점으로 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전반적인 압력은 일관되게 극도의 수준을 유지했다. 클랜 지도자들, 원로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의심되는 개인을 면밀히 감시한다. 이 상황은 지역의 광범위한 불안정성, 특히 알샤바브의 활동으로 인해 악화되어, 소말리아는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폭력과 압력은 모두 법적 및 비법적 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한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인 영역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성경이나 기타 기독교 문서를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가족과 공동체의 승인 하에 처형된다. 개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종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조차 기독교로의 개종 사실을 숨겨야 한다.

가족 영역

소말리아 사회는 아이들이 무슬림일 것으로 간주한다. 기독교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아이에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급진적인 클랜 구성원들이 그 아이의 부모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 모든 아이들은 마드라사에 참석하여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한다.

공동체 영역

소말리아 사회는 보수적이며 이슬람 교리가 사람들에게

게 강요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감시당한다. "좋은 무슬림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알샤바브와 같은 단체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독교 단체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수행한다.

국가 영역

소말리아 정부는 헌법이 이슬람에서의 개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말리아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믿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영역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모가디슈에서 가톨릭 교회를 재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르게이사에서 가톨릭 교회를 재개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공공의 분노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비공식적인 기독교 예배 장소(가정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Alamy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소말리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 (CAT)
4. 아동 권리 협약 (CRC)

**소말리아는 아동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CRC 제14조에 예외를 두고 있다.*

소말리아는 기독교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그 개종이 발견되거나 의심만 되어도 즉시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종교적 가치에 따라 양육할 수 없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모든 소말리아인은 무슬림으로 간주되며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ICCPR 제18조)
- 개종한 여성은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ICCPR 제23조 및 ICESCR 제10조)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수니파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 단체는 소말리아에서 의미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알샤바브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상황이 매우 극단적이어서 시아파 무슬림들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온건한 수니파 무슬림들도 표적이 된다. 소말리아의 법률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 전파를 금지하고, 무슬림이 개종하거나 이슬람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



오픈도어의 소말리아 사역

오픈 도어는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뿔 지역 전역에서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을 지원해왔다. 우리의 비전은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성장시키고 양육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자 훈련을 돕고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박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

